

고창문화탐방 시티투어 추진

11월말까지 총 25회 운영... 매주 화·목·토 1박2일 일정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가득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고창문화탐방 시티투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태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과 역사, 문화유적 등 풍부한 자연생태자원과 풍천정어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 석정휴스파와 편백나무 숲 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부터 '고창문화탐방 시티투어'를 시작했다.

오는 11월말까지 총 25회 운영되는 이번 시티투어는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http://korea.lottetour.com>)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매주 3회(화,목,토) 1박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제43회 고창모양성' 기간인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시티투어 버스가 매일 출발한다.

시티투어 참여자들은 첫째 날 서울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과 청동기 시대의 각종 유물 및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고창고인돌박물관과 선사체험마을,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관소리박물관, 풍리 신재호 고택 등을 둘러보고 석정휴스파에서 온천체험을 하며 힐링과 원기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또한 둘째 날에는 월산산립육장의

편백나무 숲을 걸으며 자연의 청량함을 만끽하고 석정온천 관광지내 황토길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낸 후 부안면 미당사문화관과 선운산도립공원을 둘러 자연과 역사문화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관광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에 관광을 희망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시티투어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다"며 "고창군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역관광명소를 빠짐없이 둘러보고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의회의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 6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군정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의회, 현장방문 주요사업 점검

주요사업장 문제점 파악·현안사항 개선·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임실군의회의(의장 문영두)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 6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군정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현장방문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육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불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인 육정호 관리현황, △덕치 치천 하천재해 예방사

업, △관촌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오수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정비 사업,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 △임실N치즈 축제 등 임실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군의회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주민으로부터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자마다 사업현황을 청취한 의원들은 사업추진으로 주변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제시된 의견과 개선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은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임실군의 주요 현안 및 핵심 추진사항들을 보다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주에서의 지진 발생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각종 사업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지리산권 관광매력 홍보

트래킹 등 테마상품 판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 본부장 조지환)은 최근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Tourism EXPO Japan 2016, 이하 박람회)'에 참가하여 지리산권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현지 여행사와의 적극적인 세일즈를 통해 여행상품화를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2012년부터 지속적인 참가로 꾸준히 인지도를 다져온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 여행트렌드에 맞게 먹거리 투어, 디지털 관련, 건강과 힐링을 위한 헬스 투어, 트래킹 투어 등의 테마상품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공략에 나섰다. 박람회 첫날 JATA 국제상담회에서는 니폰트래블, TPI, 메이 테츠관광 등 7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의 B2B 세일즈를 통해 지리산권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매를 도모했다.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 산청 동의보감촌, 하동 야생차 관련, 함양 신앙산을 연결하는 한방힐링투어, 곡성 기



차마을, 구례 산수유, 하동까지의 19번 국도변 뱃꽃 등을 연결하는 불철꽃놀이 상품, 남원의 국악체험, 장수 승마체험 등 액티비티 체험투어까지 구체적인 테마 중심의 추천코스를 제시함으로써 SIT(특수목적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에 힘을 실었다.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 산청 동의보감촌, 하동 야생차 관련, 함양 신앙산을 연결하는 한방힐링투어, 곡성 기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시민대상 역사기록물 수집

추향제 같은 지역축제·문화제·관광지 기록물 등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10월 4일부터 두 달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이번 수집행사는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존할 수 있는 남원 역사기록관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수집품은 남원역사 및 시민들이 기억하는 남원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남원시(군)를 추억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요 수집품으로는 남원시(읍면동 포함)의 과거 모습이나 주요 사업들과 관련된 기록물, 추향제·흥부제와 같은 지역축제 기록물, 남원의 문화제·관광지 기록물 그리고 그 외 남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 등이다. 이러한 기록물을 소장한 시민은 총무과(063-620-6085)에 문의하여 기증 의사를 전달하고 심사 및 이관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수상작은 유공시민상 수여와 함께 남원 역사기록관 구축 시 전시



되어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존할 수 있는 역사기록관 구축을 위해 남원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남원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적극 추진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신청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시간만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는 현재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 소양을 갖춘 2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260여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등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군은 자녀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추가로 양성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소득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정부 미지원 가구는 소득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본인부담액)은 시간당 1625원~6500원으로 월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주민복지과 여성팀(☎ 560-8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출장검진 실시 역할 '톡톡'

순창군이 군민 옆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해 군민 건강검진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보건의료원과 민간병원 전문 의료진이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이 27일 9개 읍면 순회를 마친 결과 1,000명이 진료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30일까지는 1,500여명 정도가 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출장검진은 순창군이 일 반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동시에 추진해 군민들이 시간은 줄이고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 효과는 대폭 높였다. 전 문병원이 참여해 신뢰도가 높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5일 적성면을 시작으로 9개 읍면에 대한 순회진료를 이미 마쳤다. 이번진료 검진대상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순창군 전체 주민으로 검진항목은 신체계측과 간기

능·신장질환·이상지혈증·빈혈 등을 진단하는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암 검진의 경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짝수·홀수 출생년도 구분 없이 1년 1회 검진을 추진 중이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정민검진을 위해 순창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검진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검진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암 검진을 받아야 추후 암 발생시 국가 암 의료비 지원 대상 자격이 부여됨을 감안해 검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원은 각 읍면 담당자와 협조해 마을이장회, 마을방송, 출장안내를 통해 대상자들이 꼭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후 암 발생시에는 최대 3년간 암 의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순창=이원형 기자



임실군, 가족분노 관리시스템 교육

임실군은 지난 26일 양돈농가, 가족분노 수집·운반업체, 액비살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족분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군청 농업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분노 배출, 수집·운반, 처리, 액비살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원들이 초빙돼 양돈농가 및 관련 사업장에서 컴퓨터로 전자인계서 작성, 등록하는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가족분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돈농가, 수집·운반, 처리 또는 액비 살포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돼지사육시설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분노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rsr.or.kr) 사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금과과출소(경감 조병길)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금과면, 풍산면 소재 농산물 보관창고, 정미소 등에 특별 방범작전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노력의 결실인 농산물 절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농산물 보관창고의 잠금장치 및 경보기, CCTV작동상태등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정미소의 경우 업주에게는 취약 시간대 특별관리토록 당부하였으며, 필요 시 경찰관에게 사전 예약순찰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병길 과출소장은 "한해 짝의 결실로 얻은 농작물의 피해는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농작물 보관창고,정미소등에 대한 부단한 순찰과 진단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남원시, 춘향골 아카데미특별강좌

남원시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한 명사 초청, 춘향골 아카데미특별강좌를 오는 29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이계호 교수를 초청하여, '바른 먹거리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와 일상에서의 식습관의 중요성,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먹거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계호 교수는 태초먹거리 대표로,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분석화학 이화학사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계호 교수는 또한 KBS 아침마당·강연 1000씨, MBC 암과 나, MBN 황금알·엄지의 제왕 등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번 강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21일에는 헤민 스님을 초청하여 '마음 치유 콘서트'라는 주제로 시민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